환일소식

은 행 나 무

여름방학호

·발행인 : 이정철
·발행처 : 환일고등학교
·주 소 : 서울시 중구 환일길 47

http://www.hwanil.hs.kr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기도하며, 함께 웃고, 공부하는 사랑의 환일!

2025년 1학기를 맞아 우리 환일에서는 학생들이 신앙과 학업, 공동체 생활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사진에는 스포츠 축전 시 함께 웃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수업 모습 등 학생들의 활기찬 생활이 담겨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수업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엿보인다. 다가오는 2학기에도 이러한 밝고 건강한 학교문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학생들이 하나 되어 꿈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신문편집반 일동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김은미 이사장님

일찍 찾아온 무덥고 끈적거리는 여름을 지내면서
환일 학생들의 체력이 지쳐가는 이때

우리는 다시 활력의 원천을
찾을 수 있는 방학을 맞이합니다.

1학기 동안의 모든 행사를 뒤로하고
시험을 치른 뒤의 홀가분함으로 소규모 테마 여행을 다녀옵니다.

푸른 바다와 산과 강과 함께 자연의 한 부분으로 돌아가
우리의 정서를 마음껏 적시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5년 1학기를 마치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힘들고 불편한 과정을 견디고
새로운 삶의 원기를 다시 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바다로 소망의 돛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을 따르며,
새로운 도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3 여러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무덥고 괴로운 여름방학을 잘 극복하여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 감사합니다.

1면–12면 주요내용 소개

1면 이사장님 말씀
2면 생각의 힘을 기르는 여름방학/제11회 합창경연
3면–9면 학교행사 및 소식
10면–11면 소감문
12면 수상 및 2학기 주요일정

즐겁고 내실있는 여름방학

생각의 힘이 경쟁력이다

환일고등학교 교장 이정철

사랑하는 환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으로 한 학기를 충실히 마무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생각의 힘이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짧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깊이 있는 '생각의 힘'입니다.**

지식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바르게 분별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새롭게 연결지어 해석하는 힘은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기독교 학교의 교육은 단지 성적을 위한 지식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인재**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학은 쉬는 시간인 동시에,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책을 통해, 자연을 통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무엇보다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은 자라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직하고 따뜻하며 창의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남이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고 고민하는 공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여름방학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크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합창경연

2025년 5월 30일,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제11회 합창경연이 진행되었다. 고등학교 1,2학년 총 13개반이 참여하여 모두가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다. 박종원 심사위원님의 심사평처럼, 작년보다 한층 발전한 실력으로 모든 반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훌륭한 화음을 뽐냈다. 학생들의 경연이 모두 진행된 후, 정유진 선생님의 독창 무대와 학부모님들, 1,2학년 담임선생님들이 함께하신 특별 공연이 진행되었다. 학부모님들과 1,2학년 담임선생님들이 함께 부른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곡은 감동적인 가사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울림을 가져다주었다. 올해의 대상은 '새들처럼'을 부른 2학년 6반이 수상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2학년 6반뿐만 아니라 모든 학급의 학생들이 밤하늘을 하모니로 수놓은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2학년 송영빈 기자

제11회 합창경연을 맞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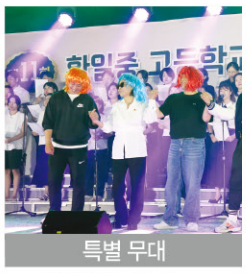
김은미 이사장님

신록의 계절 5월
가지각색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환일 아들들의 다채로운 화음으로
온 교정을 가득 채우려 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학급이 한마음이 되고
나아가 환일 전체가 하나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합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간의 근심과 걱정 피로를 날려 보내는 힐링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30.
학교법인 운화학원 이사장 김 은 미


특별 무대

금상(1-2)

대상(2-6)

고등학교 학생 사회

학부모님들

이사장님 격려사

지휘 (2학년 박정호)

환호하는 학생들

교사, 학부모 공연

사회자 (송윤진, 계연주 선생님)

환일고 24회 동문 박종원 교수님 심사평

정유진 선생님 특별 공연

학교행사 및 소식

2025학년도 스승의날 훈화말씀

매년 돌아오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올해 선생님들의 느낌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춘의 푸른 꿈을 안고 환일교정에서 근무하면서
이제는 희끗희끗한 흰머리를 가지고
참으로 오랜 세월을 환일교정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있을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과연 나의 진로 선택이
적절하였는지? 후회없는 선택이었는지
되돌아 볼 것입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만족한 삶이었다고
자부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교권침해, 무례한 행동으로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허나 우리 환일 교정에서는
이런 일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모두가 선생님들의 진심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먹고 자란
환일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스승을 존경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환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천, 애국, 애인의 교훈 아래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는
환일 동산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학교를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일 파이팅!!

– 환일 김은미이사장 –

선생님께 드리는 글

3학년 권호성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선고등학교 3학년 권호성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또 너무 당연해서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
늘 저희보다 일찍 학교에 오시고,늦게까지 남아 저희를 위해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단호하게 저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저희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능성을 믿어 주셔서,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요즘,선생님들의 응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저희가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스승의날 행사

2025년 5월 15일, 우리 학교 대강당에서는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전 교직원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사장님의 영상 편지와, 학생들이 준비한 축하 공연 등이 어우러져 교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특히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감사 편지와 합창 공연은 교사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다. 계연주 선생님은 “학생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읽고 큰 위로와 보람을 느꼈다”는 소감을 전하셨다.
이번 스승의날 행사에서는 김철우 선생님께서 교육감상을, 이은주 선생님께서 교육장상을 수상하셨다. 김철우 선생님은 “이 학교에 교사로 서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하셨고, 이은주 선생님은 “앞으로도 좋은 교사가 되겠다”며 소감을 전하셨다.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참된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기고 스승과 제자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학년 정재원 기자

교육감상 수상

이사장님 훈화

스승의날 편지글 낭독

교육장상 수상

축하 공연 1

축하 공연 2

선생님과 학생과 함께

교직원 단체 사진

담임선생님과 함께

2025 교생실습

2025년 5월 1일, 우리 학교에 와주신 여덟 분의 교생 선생님들께서 5월 28일자로 교육 실습을 마치셨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 학교 시설 탐방, 부서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1주차에는 학교의 분위기를 익히고 2주차에는 본교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며 수업 방법을 익히고 자신이 계획하는 수업의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3, 4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고 학급을 운영하며 교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익혔다. 실습 마지막인 4주차에는 미술과 김윤정 선생님이 교생 대표로 연구수업을 하시고 간담회를 가졌다. 설레는 마음으로 환일고등학교에 찾아오셨을 교생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추억들만을 가지고 가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왼쪽부터 (존칭 생략) 체육 윤동희, 체육 윤승현, 정보 김지안, 영양 김지윤, 미술 김윤정, 체육 윤준영, 종교 권주영, 음악 김한성

학교행사 및 소식

부활절 촛불예배

4월 21일 월요일 저녁, 우리학교 운동장에 수많은 촛불이 켜졌다. 부활절 촛불예배를 통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환한 촛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을 전한 것이다. 윤예준 학생과 윤호찬 학생의 기도문 낭독과 박종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또한, 합창단 학생들이 준비한 '무덤에 머물러' 찬양은 반주 없이 학생들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울림을 전해주었다.

강대에서부터 차례차례 옮겨진 불빛이 각자의 손에서 하나가 되었다. 타오르는 불빛을 손에 들고 다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다'를 외치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어둠을 이기는 작은 불빛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환일인들 모두가 낮은 곳을 향해 눈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2학년 김태호 기자

부활의 촛불

예배 사진

이사장님과 촛불 점화

이사장님 축하 인사

십자가

경건하게 아멘

찬송가 합창

안보 체험

지난 5월 9일(금)과 23일(금), 우리 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파주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일대로 안보체험 행사를 다녀왔다. 이른 아침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임진각으로 향했고,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을 직접 보고 걸으며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맑은 날씨 덕분에 도라전망대에서는 북녘 땅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고, 제3땅굴에서는 분단이라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지난 역사가 남긴 상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교과서 속에서만 보던 역사가 실제 공간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많은 학생들이 놀라워했고, 평화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안보체험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학생들이 한반도의 현실을 이해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학년 이승빈 기자

1학년 1반

1학년 3반

단체사진

2학년 5반

1학년 2반

2학년 4반

2학년 7반

기드온 성경 전달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25년 3월 17일, 우리 학교의 전통인 기드온 성경 예배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국제기드온협회'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은 선교 단체로, 올해는 민현식 장로님의 설교 말씀과 함께 환일중 ·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신 민현식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귀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다. 성경 전달식이 끝난 후 환일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전달 받은 성경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환일고의 자랑스러운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맹세하였다.

2학년 함주안 기자

기드온 예배

성경 전달 모습

단체사진

경배와 찬양단 공연

학교행사 및 소식

입학식

2025년 3월 4일 월요일, 본교 대강당에서 96명의 신입생을 위한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학부모님들과 오늘의 주인공인 신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고 경건하게 식이 진행되었다. 우리 학교의 전통과 역사가 담긴 소개 영상과 설립자님의 교육철학을 담은 영상을 통해 신입생들은 환일인이 된다는 설렘과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3학년 양인규 학생이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부른 '나의 갈길 다가도록'은 입학식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어주었다. 1학년 김재현 학생의 선서 및 이정철 교장 선생님의 입학 승인으로써 96명의 신입생들은 모두 환일인이 되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한 모든 신입생들이 환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환일고의 새로운 역사를 당당히 써나가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3학년 김찬영 기자

입학식1

입학식 2

입학식 합창공연

이사장님 소개

입학생 선서 1

입학생 선서 2

흡연예방 캠페인

4월 17일 점심시간, 급식실 앞에서 중구보건소와 함께하는 흡연예방 캠페인이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중한 캠페인이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흡연이 흡연자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 환경에도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흡연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담배 연기와 꽁초가 공기와 토양, 바다까지 오염시킨다는 설명을 들으며, 흡연이란 단순히 개인의 나쁜 습관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몸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었기를 소망한다.

2학년 전한빈 기자

캠페인 참여 모습 1

캠페인 참여 모습 2

타르를 보고 놀라는 학생

캠페인 참여 모습 3

캠페인 참여 모습 4

캠페인 전경

독서아카데미 개강식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독보도서관은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4월 10일, '세계 책의 날' 행사 첫 날에는 '독서 아카데미' 개강을 알리는 개회식이 열렸다. 이 개회식에서는 독보도서관 대출 1위 학생에게 상품을 증정하고, 독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기도 하였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새로운 독보도서관을 보다 친숙하게 느끼도록 기획한 행사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시어로 시 짓기', '너의 이름은?', '책 처방전 북큐레이션' 등, 학생들이 책을 즐겁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행사 첫날부터 많은 학생들로 붐비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행사를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도서관을 더 자주 찾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독보도서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학년 오건희 기자

교장선생님 인사말씀

단체 사진

기념품 전달

활동 모습

독서창작캠프

5월 16일 금요일, 우리학교 독보도서관에서 '독서창작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독서창작캠프는 '나만의 환경그림책 만들기'라는 주제로 우리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나만의 환경책'을 출간한다는 상상을 하며 출간 계획서를 먼저 작성하였다.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들, 환경을 살리는 행동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환경 그림책을 기획하였다. 이후에는 기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그림책을 쓰고 그리면서 책을 만들어 나갔다. 익숙하지 않은 활동에 처음에는 매우 낯설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스스로 책을 만든다는 뿌듯함에 학생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하여 책 한 권을 뚝딱 만들어냈다. 독서창작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그림책을 참여 학생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환경에 대한 내 생각을 담아 직접 그림책을 기획하는 것이 매우 새롭고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2학년 송준성 기자

그림책 제작 모습 1

그림책 제작 모습 2

결과물

결과물 발표

학교행사 및 소식

고1, 고2 등행

지난 6월 5일(목), 우리 학교 1, 2학년 전 학급이 관악산 등행 활동을 다녀왔다. 초여름의 선선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학년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번 등행은 학급별로 정해진 코스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은 담임 교사 및 인솔 교사의 지도 아래 질서 있게 산행에 임했다. 비교적 완만한 구간을 중심으로 짜인 코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모든 인원이 무사히 완주하였으며, 중간중간 펼쳐진 푸른 숲과 맑은 공기는 학생들에게 색다른 활력을 선사했다.

등산을 마친 학생들은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걷는 시간이 무척 즐거웠다", "힘들었지만 도착했을 때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함께 땀 흘리며 협력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긴 관악산 등행은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2학년 박정호 기자

2학년 단체 사진

1학년 단체 사진

2학년 7반

2학년 4반

2학년 7반

1학년 3반

1학년 1반

기도하는 모습

고3 문화 탐방

5월 9일 금요일,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은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문화 탐방 행사를 떠났다. 3학년 새학기가 시작된 후 계속된 학력평가와 중간고사 때문에 지쳐있던 고3 학생들에게 단비같은 시간이었다. 비록 봄비가 내려 하늘이 어둡긴 했지만, 오랜만의 야외 행사에 학생들은 들뜬 모습이 역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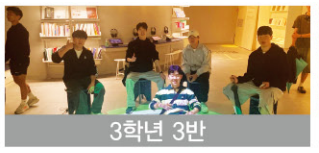
아침 일찍 모여 반별로 졸업사진을 찍으면서 졸업을 앞둔 설렘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다. 출산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신 송영한 선생님 대신, 송영한 선생님의 사진을 들고 졸업사진을 찍는 유쾌한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다. 이후로 자유롭게 경복궁 일대와 국립민속박물관을 구경하면서 봄날을 만끽하며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문화 탐방에 참여한 모든 3학년 학생들이, 내리는 봄비에 학업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3학년 김주한 기자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3반

3학년 4반

직업반

3학년 5반

3학년 6반

3학년 7반

3학년 8반

3학년 9반

제73대 학생회장 · 부회장선거

우리 학교의 2025학년도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가 지난 6월 18일 본투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2학년 1반 임민혁, 2학년 2반 전한빈, 2학년 4반 이준용, 2학년 6반 김태양 학생이 입후보로 등록하여, 치열했던 선거전 끝에 2학년 김태양 학생이 학생회장에, 이준용 학생이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약 일주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후보자들은 아침 등굣길 유세,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자신들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6월 16일에 열린 정견 발표회에서는 각 후보들이 자신만의 비전과 정책을 진지하게 공유하며 학생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당선된 김태양 학생은 "모두가 즐겁고 알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이준용 학생 역시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는 부회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선거는 공정성과 민주성을 갖춘 절차 속에서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자치와 책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학생회장단의 앞날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2학년 김제현 기자

선거 유세 모습

입후보자(2학년 임민혁, 김태양, 전한빈, 이준용 학생)

정견 발표 1

정견 발표 2

투표 1

투표 2

중구청 정동야행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우리학교 학생 3명과 이화평 선생님이 중구청에서 개최한 정동야행 행사에 다녀왔다. 정동야행 행사는 매년 중구의 덕수궁길과 정동길 일대에서 펼쳐지는 행사로, 다양한 볼거리와 특별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작년과 달리 이번 정동야행 행사에는 3명의 학생만이 참여했는데, 그래서인지 볼거리들을 더더욱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다. 이화평 선생님과 학생들은 덕수궁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며 학교생활의 고민 등을 나누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선생님과 함께 학교 근처 행사에 참여하는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뿌듯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2학년 김형준 기자

정동길 관람

단체 사진 1

이화평 선생님과 함께

단체 사진 2

학교행사 및 소식

고1 스포츠 축전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따뜻한 봄볕 아래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축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체력을 기르고 반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모든 경기가 학급 대항전 형식으로 치러졌다.

주요 종목은 승부차기, 족구, 축구 결승전이었다. 경기 내내 운동장에는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함성과 박수 소리가 가득했다. 특히 축구 결승전에서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펼쳐졌고, 승부차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명장면들이 속출하며 큰 환호를 이끌어냈다.

경기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 반이 한마음으로 뛰는 걸 느꼈고, 졌지만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응원하면서 목이 쉬었지만 그만큼 더 끈끈해진 느낌이다. 반 친구들이 자랑스럽다"며 웃었다. 축구 결승에 출전한 한 학생은 "부담도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뛰어줘서 고마웠다. 이게 진짜 팀워크인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봄의 끝자락에서 열린 이번 스포츠 축전은 1학년 학생들에게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함께 땀 흘리며 웃고 응원했던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1학년 김연수 기자

교사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축구 경기 2

농구 경기

이어달리기

축구 경기

농구 경기

이어 달리기

축구 경기 1

환호하는 학생들

농구 경기

고2 스포츠 축전

2025년 5월 10일 금요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축전이 비가 쏟아지는 날씨 속에서 열렸다.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해 대부분의 야외 경기가 취소되었지만, 학생들의 열정은 빗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당초 계획된 종목들은 진행이 어려웠지만, 축구 결승전은 빗줄기를 뚫고 그대로 진행되었다. 흠뻑 젖은 운동장 위에서도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었고, 응원하는 친구들의 목소리도 비를 뚫고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한 학생은 "비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더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교사팀과 학생팀 간의 축구 친선경기도 예정대로 진행되며 눈길을 끌었다. 교사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빗속을 달리는 모습은 경기장을 웃음과 박수로 가득 채웠고, 경기 결과를 떠나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진정한 축제의 순간이었다.

한편, 실내에서는 탁구와 농구 경기가 진행되어 실력을 겨루고 팀워크를 다지는 장이 되었다. 체육관 안에서도 열기는 식지 않았고, 선수들은 한 점 한 점에 최선을 다하며 반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임했다.

이번 2학년 스포츠 축전은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학생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교사와의 따뜻한 교류가 돋보인 하루였다. 빗속에서 빛난 이들의 웃음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2학년 정대상 기자

교사, 학생 축구 경기

농구 경기

단체 사진

우승팀 발표

농구 경기

관람하는 모습

시상식

축구 경기

농구 경기

고3 스포츠 축전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스포츠 축전이 비가 오는 가운데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수능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3 학생들이지만, 이날만큼은 책을 잠시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와 활짝 웃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린 비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강한 요청으로 행사는 그대로 강행되었다. 축구, 피구, 줄다리기 등 주요 종목들이 빗속에서 진행되며 평소보다 더 거칠고 혼연일체의 모습이 연출되었다.

비에 젖은 교복과 체육복, 미끄러운 운동장도 학생들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다. 응원석에서는 우비 대신 비를 맞으며 친구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경기장에서는 고함과 웃음이 쏟아졌다.

한 학생은 "요즘 정말 지치고 힘들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고3이라는 사실을 잊고 정말 즐겼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비 덕분에 더 기억에 남는 축전이었다. 졸업 전, 반 친구들과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올해 고3 스포츠 축전은 빗속에서도 학생들의 밝은 에너지와 반 친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빛난 하루였다. 공부로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웃으며 뛰어놀았던 이 하루는, 고3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마지막 봄날의 선물이 될 것이다.

3학년 박찬영 기자

시상식 1

시상식 2

관람 모습

단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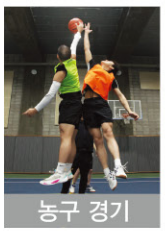
달리기

환호하는 모습

학부모님 관람 모습

이어달리기

축구 경기


농구 경기

축구 경기 1

축구 경기 2

학교행사 및 소식

대학 탐방

5월 21일 금요일, 우리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서강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상명대, 한국체대, 서울대, 한국외대, 동국대, 세종대, 경희대, 숭실대로 대학 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대학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캠퍼스 투어를 하고 대학생 선배들을 만나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무더운 날이었지만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캠퍼스를 거닐었다.

경희대학교에 견학을 다녀온 2학년 4반 정재형 학생은 '멋진 건물들과 대학생 선배들을 보면서 경희대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번 대학 탐방을 통해 꿈꾸는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2학년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2학년 한정원 기자

고려대학교 탐방

서강대학교 탐방

동국대학교 탐방

상명대학교 탐방

성균관대학교 탐방

한국외국어대학교 탐방

학부모 방문의 날

2025년 3월 28일 목요일, 우리 학교에서는 2025학년도 학부모 방문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 교육의 방향과 실제 수업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행사는 오전부터 진행되었으며, 강당에서는 학교장 인사와 함께 학교 소개 및 교육과정 안내가 이뤄졌다. 이어 학부모들은 학년별로 안내된 수업에 직접 참관하며 공개 수업을 참관했다. 실제 수업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은 진지하면서도 활기찼고, 학부모들 역시 진지한 눈빛으로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지켜보았다.

이번 공개 수업에서는 과학탐구실험(1학년), 화법과 작문(3학년), 정치와 법(2학년), 체육 등 다양한 교과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으며, 교사들도 수업 중 학부모들과 눈을 맞추며 교육 철학을 전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직접 보고 나니 안심이 된다"며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수업을 지켜보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학부모 방문의 날은 단순한 참관을 넘어, 학교와 가정이 함께 소통하며 교육의 방향을 공유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 학교는 앞으로도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학년 함주안 기자

학부모 설명회

이사장님 인사 말씀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

학부모님들

수업 참관 모습 1

수업 참관 모습 2

수업 참관 모습 3

독보도서관 이전

독보도서관이 새로운 공간에서 문을 열었다. 기존 급식실 자리에 새롭게 자리잡은 독보도서관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어 학생들에게 더욱 편안한 독서 환경을 제공한다. 밝고 따뜻한 햇살이 드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한 독보도서관은 더욱 넓어진 열람 공간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하거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새로운 독보도서관을 이용한 한 학생은 "이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밝은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 전보다 도서관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책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창이다. 더 넓고 쾌적해진 독보도서관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학년 박희준 기자

독보도서관 이사 과정

독보도서관

열람실

자습실

학교행사 및 소식

홍비치라 작가 명사 특강

2025년 4월 2일, 우리 학교 대강당에서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홍비치라 작가님의 특별한 강연이 열렸다. 홍비치라 작가님은 인기 웹툰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를 통해 의학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작가님은 "그림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었고, 그 희망이 결국 나를 살렸다"고 이야기하며, 꿈을 찾기까지의 고통과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들려주셨다.

강연을 들은 한 학생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며 "오늘 강연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메디컬 일러스트라는 직업에 처음 관심이 생겼다. 의학과 예술이 만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멋졌다"고 말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고, 작가님은 학생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히 답하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진로 특강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하루였으며, 작가님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따뜻한 시선은 많은 이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2학년 정성훈 기자

사전 발표 2학년 김선우 학생

강연 모습

시청각실 세미나 1

작가님 싸인회

시청각실 세미나 2

단체 사진

사전 발표 1학년 김준휘 학생

청출어람(김학권 선생님)

진로진학 아카데미

2025년 6월 10일(화)과 7월 2일(수), 우리 학교에서는 고1 창의융합 기초아카데미 전공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진로진학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주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강은 3학년 1, 2, 3, 4, 6반 교실에서 분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총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초청되어 강연을 펼쳤다. 김찬미 강사는 인문사회 분야, 임준영 강사는 공학계열, 한서현 강사는 인공지능, 류은선 강사는 창의예술, 권이철 강사는 건축 분야를 주제로 학생들과 만났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공과 직업 세계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솔직하게 전달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 학생은 "인공지능이나 건축처럼 평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분야를 실제 사례와 함께 들으니 훨씬 실감 나고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지금부터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방향이 조금은 잡힌 것 같다"며 특강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전공특강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 환일고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학년 성치헌 기자

인문사회

건축

공학계열

인문사회

창의예술

2025 서울코리아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2025년 4월 9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코리아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를 직접 관람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펼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지켜보며, 학생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스포츠에 전념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2학년 함수호 학생은 "선수들이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단순히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라는 스포츠에서 진정한 경쟁자로서 싸우고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경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더 널리 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울림'의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행사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잊지 못할 살아있는 교육의 시간이 되었다.

2학년 나재승 기자

관람 모습 1

경기 모습 1

경기 모습 2

관람 모습 2

영재학급 입학식

4월 8일 화요일, 경천관 2층에서 2025학년도 영재학급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영재학급 입학식은 김기욱 영재부장 선생님의 사회와 기도로 시작되었다. 이어 이정철 교장님의 환영사와 입학허가 선언 및 격려사가 이어졌다. 특히 과학, 수학 AI 관련 현재 발전 상황, 수반 문제들을 언급하시며 영재학급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훌륭한 학생으로 자라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다.

2학년 나재승 학생과 한정원 학생의 주제 발표를 통해 영재학급의 활동을 엿볼 수 있었다. 수학과 과학, AI 분야를 이끌 환일의 새로운 영재들이 알찬 활동을 통해 앞으로 1년간 큰 성장을 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2학년 김한별 기자

학생 발표 1

학생 발표 2

교장 선생님 인사말씀

소감문

명사 특강 소감문

운명과 노력의 조화 : 홍비치라 작가님의 명사특강을 듣고

2학년 한정원

홍비치라 작가님의 명사특강은 작가님의 인생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님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점차 실력을 쌓아 마침내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원래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웹툰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를 연재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웹툰을 연재하던 중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병간호와 작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작품을 완성해 낸 작가님의 모습이 저에겐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연에서 작가님은 자신의 성공이 운명이 따라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 역시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안보체험 소감문

역사적 교훈의 장소 제3땅굴!

1학년 김희찬

제3땅굴을 체험하면서 분단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보안 검색과 안내를 받으며 무거운 분위기를 실감했고 안전모를 착용한 채 땅굴로 내려가는 길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땅굴 내부는 낮고 어두워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조차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길이 명확히 보이는 구조를 통해 실제 침투의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고 군사적 긴장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땅굴 끝에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철문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꼈고 통일이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3땅굴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교훈의 장소입니다.

독서창작캠프 소감문

나를 찾아가는 여행

3학년 김예찬

독서창작캠프에 참가하기 전까지 나는 책 읽는 일이 꽤나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속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 나는 독서가 얼마든지 '함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새롭게 배웠다.

캠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낯선 조 편성으로 시작해서 팀 미션을 해결하고, 모둠별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다. 처음엔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도, 함께 책 내용을 두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점점 사라졌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 전혀 다른 감상을 갖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창작 활동 시간이었다. 책 속 인물의 입장에서 편지를 써보거나, 결말을 바꿔보는 활동은 단순히 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느낌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시도라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막상 펜을 들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책에 대한 애정도, 몰입도 훨씬 깊어졌다. 나중엔 친구들의 글을 읽고 감탄하기도 하고, 내 글에 대한 반응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번 캠프의 또 다른 매력은 분위기였다. 학교 수업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이 조금 느리게 느껴졌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책을 읽고 대화하는 시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평소 말이 많지 않은 친구가 조용히 자기 생각을 꺼내놓는 장면이나, 글쓰기를 힘들어하던 친구가 진심 어린 글을 완성했을 때는 묘한 감동마저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이 모든 과정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더 의미 있었다. 독서라는 활동이 이렇게 풍부하고, 창작이라는 일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이 큰 수확이었다.

독서창작캠프는 단순한 독후활동을 넘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자리였다. 책은 여전히 혼자 읽었지만, 생각은 함께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조금 더 성숙해졌다. 평소에 쉽게 지나쳤던 문장 하나, 대사 하나에도 다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글을 읽는 동시에 나만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습관도 생긴 것 같다.

캠프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도 책을 읽을 때면 이때의 경험을 떠올릴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활동에 또다시 참여하고 싶다. 나에게 새로운 자극과 시야를 안겨준 이번 독서창작캠프는 분명 내 학창시절의 소중한 한 페이지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실습 소감문

환일고 교생실습을 마치며

고려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김윤정

처음 교육실습을 배정받고나서부터 학교에 오기까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직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안고 등교했지만 반 학생들과의 첫 대면에서 만난 순수한 눈빛들에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실습현장에서 만난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은 하나같이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대해주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할때마다 꾸밈없는 눈빛과 환한 웃음 덕분에 하루하루가 더욱 따뜻하고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매번 실습생들을 반가운 인사로 맞아주셔서 학교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과 교직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피드백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교직에 대해 고민하는 실습생들에게 교사로서, 선배로서 진지하게 상담해주신 것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교직에 대한 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교과의 수업을 참관하며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쉽게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지를 보게되어 그동안 대학에서 느낀 이론과 실제 교육의 괴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실습을 하며 학생들이 무척 열의를 갖고 참여해주어서 저도 같이 힘을 내서 즐겁게 수업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 선생님의 세밀하고 전문적인 실습 피드백 덕분에 저의 부족한 점을 새롭게 알게 되어 예비 교육자로서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습 기간 동안 다양한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체육대회, 스승의 날 행사, 대학탐방 등 학생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많은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며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큰 사랑으로 학생들을 키우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안고 시작한 교육실습이었지만 즐거운 추억만 갖고 마무리하는 실습이 된 것에 환일고등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 학생들을 향한 큰 애정과 열심을 배울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는 순수함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환일고등학교에서의 실습은 교직에 대한 저의 낡은 관점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과 마음가짐으로 교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짧은 교생실습을 마치지만 알찬 경험들로 채운 이 시간을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과 순수함, 열정을 간직한 채 더욱 힘차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문

등행훈련 소감문

북한산 등행

1학년 이준기

맑은 날씨 속에 북한산을 등산하게 되었다. 평소 도시의 바쁜 일상에 지쳐 있었기에, 자연 속에서의 하루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북한산은 수도권 근교에 있으면서도 웅장한 산세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산이다. 아침 일찍 등산을 시작했는데, 숲속을 걷는 동안 맑은 공기와 새소리에 마음이 절로 편안해졌다.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험한 구간도 있었지만, 땀을 흘리며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내 자신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는 무거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자연의 위대함과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번 등산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도 다시금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자연과 더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절마다 북한산을 다시 찾아, 변해가는 자연의 모습을 느껴보고 싶다.

스포츠축전 소감문

특별했던 스포츠 축전

2학년 이민재

올해 스포츠축전은 아마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예상치 못한 비 때문에 일정이 엉키고, 일부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평소엔 겪기 어려운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비 맞으며 친구들과 뛰었던 운동장, 선생님들과 함께 웃으며 공을 차던 그 시간들은 단순한 경쟁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따뜻했다.

아침부터 흐리던 하늘은 첫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금세 빗방울을 쏟아냈다. 다들 당황했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비를 입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자리를 지켰다. 천막 아래서 쪼그려 앉아 응원하던 친구들, 우산도 없이 달리는 친구들을 향해 환호를 보내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경기장은 미끄럽고 신발은 질척거렸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한 축구 경기였다. 체육 선생님뿐 아니라 평소에 축구할 것 같지 않던 선생님들까지 운동장에 등장하자 모두가 놀라고 환호했다. 우리 반 친구들도 몇 명 참가했는데, 진지하게 경기하는 모습이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계속 웃느라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옷은 흠뻑 젖었지만 그 누구도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다. 선생님과 학생이 한 팀이 되어 미끄러운 운동장에서 땀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을 튀기며 뛰고 웃던 그 순간은 정말 특별했다. 비 때문에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변경되었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추억을 남겨주었다.

다 끝나고 나서야 흙탕물을 튄 운동화와 젖은 옷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짜증보단 아쉬움이 더 컸다. 모두가 비를 맞았고, 모두가 웃었다. 이번 스포츠축전은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걸 넘어, 함께였기 때문에 즐거웠다. 서로를 응원하고, 웃음을 나누고, 선생님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팀이 되어 뛰었던 이 하루는 분명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비가 와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던 날.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정말 행복했다. 다음번 스포츠축전에서도 꼭 이런 시간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준비하느라 수고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우리 반 모두 정말 최고였다.

합창경연 소감문

함께 어울려 하나 되는 합창경연

2학년 임성근

처음 합창제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다. 반 전체가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고, 처음 맞춰본 합창곡은 생각보다 어렵고 생소했다. 음정이나 박자가 엉키는 날도 많았고, 연습 중에 의견 충돌이 생기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격려와 반 친구들의 진심 어린 참여 덕분에, 우리 반만의 색깔이 조금씩 만들어졌다. 쉬는 시간에도 삼삼오오 모여 연습하는 모습, 파트별로 따로 만나서 노래를 맞추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열정이 있었구나 싶었다.

연습을 거듭하면서 '내가 잘 부르는 것'보다 '우리의 소리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목소리를 낮추거나 음량을 조절하면서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험은 특별했고, 나도 모르게 합창에 진심이 되어 있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이 우리 반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되었던 것 같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함께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퍼졌고, 그 덕분에 연습 분위기도 점점 좋아졌다.

무대에 올라 조명을 받으며 노래를 부르던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다. 떨리기도 했지만, 연습 때보다 훨씬 더 집중됐고 반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함께 호흡하는 그 순간이 정말 벅찼다. 무대 아래에서 손뼉을 쳐주는 친구들, 선생님들의 응원, 그리고 무대를 내려왔을 때 서로를 안아주며 수고했다는 말들을 나누던 그 장면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다.

이번 합창제를 통해 단순히 노래 실력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학교 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보다 값진 경험도 드물었던 것 같다. 이젠 노래만 들어도 그때 연습하던 순간과 친구들의 표정이 떠오른다. 한 곡을 완성하기 위해 수십 번의 연습을 거듭한 그 시간들은 우리 반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장애인테니스대회 소감문

'다름' 을 통해 배운 '존중' 과 '감사'

2학년 이동희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 경기를 직접 관람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테니스를 하지?'라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바로 깨달았다. 코트 위에서 휠체어를 밀며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힘껏 스윙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강렬하고 역동적이었다.

처음 공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와' 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휠체어를 탄 채 전후좌우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공을 받아치는 그 움직임은 정말 눈부셨다. 속도나 파워 면에서도 일반 테니스 못지않았고, 오히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그저 경기의 한 배경일 뿐, 선수들은 그 상황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경기를 관람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선수들의 표정이었다. 이기든 지든,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졌다. 땀에 젖은 얼굴 위로 미소를 띠며 상대 선수와 악수하는 모습은,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장이라는 걸 느끼게 했다. 한 포인트를 따냈을 때의 환호, 놓쳤을 때의 아쉬움, 동료를 격려하는 손짓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다가왔다.

또한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의 응원도 따뜻하고 인상 깊었다. 모두가 승패를 떠나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을 응원했고, 박수와 환호로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나 역시 어느새 목이 아프도록 소리를 지르며 경기를 응원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저 '관람'이 아닌, 하나의 '참여'였다는 걸 느꼈다.

이번 관람을 통해 나는 단지 휠체어 테니스를 본 것이 아니라, 스포츠가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와 인간의 의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몸이 불편하다는 조건은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노력과 투지가 경기를 더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경기를 보고 나오는 길,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어떤 다짐 같은 것이 생겼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해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 일상에서 쉽게 불평하거나 포기하려 했던 일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 날의 경험은 단순히 스포츠를 관람한 것을 넘어, 나의 태도와 시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휠체어 테니스를 포함한 장애인 스포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 단지 '장애인 경기'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로서 감동을 주는 이 경기가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이번 경험은 나에게 '다름'에 대한 이해를 넘어,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교내수상 대표 수상자

1학기 학급 회장 대표 수상자

1-1 김재현

2-1 서정훈

3-1 박재범

2학기 학급 부회장 대표 수상자

1-1 김승아

2-1 정희석

3-1 엄준혁

모범상 대표 수상자

1-1 고은율

2-2 박유중

3-1 임민우

2025 환일고 사격부 수상 내역

2025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25m속사 개인 우승, 개인 3위 동 획득
25m | 권총 스탠다드 우승
25m | 권총 속사 준우승, 개인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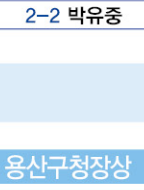
제27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25m
스탠다드 우승
25m | 속사 준우승, 개인 우승

교외수상

마포구청장상

3-2 김동하

용산구청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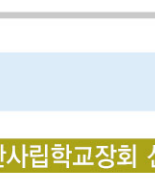

3-8 김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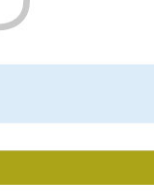
서울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3-4 문가윤

대한사립학교장회 선행상

3-1 엄준혁


3-2 김도현


3-3 한지웅

대한사립학교장회 선행상

3-4 정우진

3-5 김다울

제 11회 합창경연

금상

1학년 2반 톰보이

대상

2학년 6반 새들처럼

금상

2학년 2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지휘상

2-4 이준용

2-5 이선우

1-2 손동혁

1-3 권준수

반주상

2-1 서정훈

2-6 원재연

1-2 박주한

1-4 김민재

주요 학사 일정

7월
7월 16일(수) 방학식, 리더십캠프(~18일)
7월 21일(월)~8월 1일(금)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7월 23일(수)~7월 25일(금) 영재캠프

8월
8월 18일(월) 개학식
8월 19일(화) 2학기 방과후학교 시작
8월 28일(목) 환경미화심사

9월
9월 3일(수) 고3 대수능모의평가, 고1,2 학력평가
9월 12일(금) 수업공개 및 학교방문의 날
9월 25일(목) 개교기념식 및 가을밤 열린음악회